

[판문점선언 3년] 민간 기념행사 잇따라 열려..정부 기념식은 '생략'

민화협, 개성공단협회 등 민간 차원 행사 개최

-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6:00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민간단체들이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정부는 이날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낸다는 계획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전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남북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전학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04 photo@newspim.com

민화협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 의지를 높이고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판문점 선언 실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날 오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남북 정상에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개성공단 방문 추진 의지를 드러낸다.

협회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언제 정상화될지는 요원하기만 하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에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의지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제진역에서는 강원도 교육청 주최로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개장 행사도 열린다. 지난해에는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해 제진역에서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이 개최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방식 중에는 정부 차원의 기념식 개최도 있지만 민간 차원의 행사들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